더민주 '민생 챙기기'로 국면 전환 시도

가계 부채·서민 주거 등 TF팀 활동 재개 방침
"최저 임금 국회가 결정" 법 개정안 당론 발의키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별관 회의' 관련 문건을 언급하며 "제대로 파헤치고 조사해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들의 특권과 연관된 잇단 일탈행위로 수세에 몰린 가운데 당 지도부는 5일 '민생 챙기기'를 부각시키며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

서영교 의원이 '가족채용'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조응천 의원의 '무책임 폭로'가 이어지면서 더민주로서는 여야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경쟁에서 뒤처지는 모양새가 됐다.

이에 당 지도부는 특권 내려놓기 입법에 성과를 내겠다며 다짐하는 동시에 당내 민생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하며 위기 국면 탈출에 힘을 쏟았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혜영 의원을 포함해 소속 의원들이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며 "꼭 입법으로 연결시키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 윤리특위 백재현 위원장과도 만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하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동시에 더민주는 임시국회 상임위 일정을 고려해 가동을 중단했던 당내 민생TF 활동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TF, 서민주거 TF, 사교육 대책 TF 등의 현장방문과 토론회 등 활동을 재가동할 방침이다.

우 원내대표는 애초 이날 광주 망월동에서 열리는 제29기 이한열 열사 추모예배에 참석하려 했지만, 폭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정을 취소하고 서울에 머물기로 했다.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이후 집중할 민생현안에 대해 검토했다.

한정애 의원은 "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적어도 두자릿수 이상은 인상을 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훈 의원 역시 "최근 젊은 소방관 한 명이 혈관부종암이라는 희귀병으로 사망했는데, 순직처리를 위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들의 헌신에 걸맞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더민주 을지로위원회 대표인 우원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아르바이트노동조합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을 국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최저임금 결정 주체의 변화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최저임금심사소위원회를 설치,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최저임금 권고안을 심사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것이다.

국회는 최저임금안이 의결되면 매년 7월 말까지 고용부 장관에게 보내고, 정부는 이를 지체없이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현행법 제4조의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는 규정에서 '생계비' 정의를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포함한다'로 구체화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민의당 비대위 '호남-비호남' 균형 맞출까

박지원, 지역 안배 등 막판 고민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으로 인한 당 위기 수습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한 국민의당이 비대위 구성 완료를 눈 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비대위원 인선에서 '호남-비호남'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주말 중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조만간 발표한다"며 "인선이 되면 최고위를 소집해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에서는 또 ▲7월말까지 입당 절차 및 당비납부 시스템 정비 완료 ▲제주·강원·울산 등 시·도당 설립 ▲8월말까지 당헌·당규 정비작업 완료 ▲향후 국고보조금 등 당 재정·회계내역 대국민 공개 등을 추진키로 했다.

비대위 구성과 관련, 이날 현재 당 분위기로는 당내 다수인 호남계의 입지가 이전보다는 강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앞서 지난 2월 부터 당을 이끌어 온 1기 지도부에서는 안철수 전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非)호남계 세력이 수적인 우세를 점해왔다. 현재 최고위원회(7명)에서도 호남을 지역구로 둔 최고위원은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박주선 국회부의장 2명뿐이다. 전체 의석수 38석 중 호남을 지역구로 둔 의원이 23명(60.5%)에 이르는 것과 대비된다.

이와 관련, 박 비대위원장은 "현역 의원들 자체가 대부분 호남이 뿌리여서 호남 출신 비중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적절히 안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당이 호남 일색으로 재편될 경우 '호남당'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질 수 있는 만큼 비호남계 인사나 기타 원외인사도 중용,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박 비대위원장은 권노갑 상임고문 등 당 원로들과 접촉한데 이어,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만나면서 지역·선수·성별 등에 따른 안배를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민주 당권대결 秋·宋, 친문 구애작전

宋 "유권자 많은 곳에서 선거운동 당연"

더불어민주당의 8·27 전당대회 당권 주자들이 당내 최대계파인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진영을 향한 구애를 계속하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의장 당내 경선과 원내대표 경선에서 입증됐듯 친문 진영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는 당내 경선에서 승기를 잡기 어렵다는 현실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표 시절 최고위원을 지낸 추미애 의원이 이미 친노진영과 비슷한 행보를 하며 친문 진영의 측면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송영길 의원도 적극적으로 친문세력에 다가가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송 의원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친문에 기댄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당연히 유권자가 많은 쪽에 가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추 의원도 지난달 전북 전주 방문 당시 "문 전 대표가 (대선주자로서) 비교적 좋은 점수를 얻을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강펀치를 맞고도 1등을 하고 있다"며 후한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 특히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대선후보를 지켜줄 깊은 신뢰가 대단히 중요하다", "악의적 흔들기 세력으로부터 대선후보를 강단 있게 지킬 것"이라고 발언해 사실상 문 전 대표를 염두에 뒀다는 해석을 낳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대통령-새누리 오찬 당청관계 주목

8일 취임 후 세번째 전 의원 초청…내달 국회 의장단 추진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8일 새누리당 소속 의원 전원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 간담회를 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전하고 "20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로 출발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경제살리기와 민생돌보기에 총력을 다하는 마음을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의원 전원을 청와대로 불러 식사를 함께하는 것은 취임 이후 세 번째다.

지난 2014년 1월7일 새누리당 의원·당협위원장 26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했고, 지난해 8월26일 당 연찬회 직후 새누리당 의원들을 불러 오찬을 함께했다.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소속 20대 국회의원과의 상견례 성격을 겸한 이날 간담회에서 임기 후반기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당에서 잘 뒷받침해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와 북한의 핵도발 위협 등 경제와 안보가 엄중한 위기상황에 처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구조개혁의 완수 등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당의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추가경정예산 등 당면한 국정현안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당·청 간 협력을 강조할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내달 중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과의 오찬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저출산대책 나경원·지방재정분권 김진표

국회 7개 특별위원장 확정…새누리 3·더민주 3·국민의당 1

제20대 국회의 7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5일 사실상 확정됐다.

새누리당은 저출산대책특별위원장에 나경원(4선·서울 동작을), 정치발전특별위원장에 김세연(3선·부산 금정), 평창동계올림픽특별위원장에 황영철(3선·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치개혁·쇄신 성격인 정치발전특위는 젊고 개혁적인 성격을 가진 김세연 의원이 괜찮다고 판단했다"며 "저출산대책특위는 여성으로서 나경원 의원을 배치했고, 평창올림픽특위는 강원도 출신의 황영철 의원이 맡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장에 김진표(4선·경기 수원무), 민생경제특별위원장에 김상희(3선·경기 부천소사),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장에 이춘석(3선·전북 익산갑) 의원을 내정했다.

국민의당은 미래일자리특별위원장 후보를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 후보로는 안철수(재선·서울 노원병) 의원이 유력하다. /박지경기자 jkpark@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햇살론대출
- 임대보증금대출
- 정부정책자금대출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서양새마을금고